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이 종 목[†]
(대구교육대학교)

Qualitative Study on PE Class of Experienced Teachers and Prospective Teachers as to Elementary Student Experience

LEE Jong-Mog[†]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teachers with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he experience of students. To that end, the classes of prospective teachers and experienced teachers were compared through the students with focus on PE class. Practicum is the first teaching experience of prospective teachers and there are many related studie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ntributing to the reflective introspection of prospective teache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students.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mote their reflective introspection on their practicum, the first teaching experience. It wa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find the prospective teachers' class less helpful than the class of experienced teachers. The detail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find that prospective teachers only focus on the textbook and materials they have prepared. Second, most students find that prospective teachers do not consider the level of students as they focus on the textbook only. Third, most students find the class of prospective students uninteresting. Fourth, most students find that prospective teachers are unable to help students acquire various functions easily.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find the prospective teachers' classes are inadequate. It implies that prospective teachers do not gain effective teaching skills at their universities (college of education). Prospective teachers should identify their areas of improvement based on their student experience.

Key words : Practicum, Reflective introspection, Class improvement

I. 서론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의 개인적 관점 및 삶, 또는 그들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Clandinin과 Connelly(1988)은 교육과정을 경험으로서 바라보고 있으며, 교사의 개인적인 관점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개인적 관점 및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의 변화는 교사의 교육적 행위의 변화로부터 나오며, 이는 교사가 자기의 교육적 행위를 자각하고 반성적 성찰을

[†] Corresponding author : 010-5268-1508, jm1508@dnue.ac.kr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실천해봄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자세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교사의 교육적 경험 및 신념, 가치관, 관점 등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에게 교사로서 첫 경험인 교육실습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촉진하려고 한다. 현 교사 양성의 체계에서 현장 접근적인 방법의 하나는 교육현장 실습의 활용이 되며,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교수와 학습을 통해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활용하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된다(Park, Kyung-Suk & Lee, Je-Haeng, 2009). 무엇보다도 예비교사에게 교육실습은 미래에 교사가 될 학생들이 재학 중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첫 경험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교과교육과는 달리 예비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실무를 배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면서 체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 Moon-Soo(2012)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인식한 교사로서의 역할이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으며, 예비교사는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교육실습을 통해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한다.

이에 많은 선행 연구에서 교생의 실습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있다(Lee, Je-Haeng, 2007; Ko, Moon-Soo, 2012; Jeon, Young-Han & Lee, Choong-Hwan, 2008; Park, Kyung-Suk, 2011; Bae, Jong-Hee, 2014; Yang, Jeong-Mo & Lee, Dong-Ho, 2015).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예비교사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예비교사가 교육실습 기간 동안 겪는 여러 경험들, 딜레마, 생각, 전략, 학습관, 교육관, 정체성의 변화, 교사상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비교사가 갖고 있는 신념이며 가치관이고 교육적 행위를 이끄는 개인적인 관점이 된다. 예비교사는 연구를 통해 개인적

교육과정을 자각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예비교사 주체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자각과 반성적 성찰은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Clandinin과 Connelly(1988)은 반성적 성찰을 위해 저널쓰기, 자선적 쓰기 등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와 더불어 인터뷰, 동료 평가 등 집단적으로 활용가능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를 통해 예비교사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예비교사의 실습 경험과 이에 대한 반성은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예비교사가 자기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예비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을 보다 진중하게 성찰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경력교사의 수업과 예비교사의 수업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교생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생은 실습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게 되고,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실습 후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만약 교육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교사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그러한 전문성과 어떠한 점에서 부족한지 자각하게 된다면, 예비교사는 교육대학교 재학 중에 무엇을 더욱더 보완하고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야할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을 체육선생님의 수업과 비교하

여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예비교사의 수업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D초등학교 실습기간 동안 체육선생님의 수업과 예비교사의 수업을 모두 경험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6명과 6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가이드를 작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질문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을 비교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예비교사의 수업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예비교사의 성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한 체육선생님과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면담방법은 인간의 내면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의 특징을 뚜렷하게 알아보기 위해 체육선생님과 예비교사의 수업 모두를 경험한 초등학교 3학년 6명, 6학년 6명,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학생 12명은 학급 반 3명으로 구성되어 총 4개 반에서 선정하였다. 즉, 1반 3명, 2반 3명, 3반 3명, 4반 3명으로 구성되었다. 체육선생님 1인과 예비교사 2인이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1, 2, 3, 4반에서 수업을 2회 했다. 체육선생님은 15년 경력의 남교사이며, 예비교사는 D교육대학생이다. 2인의 예비교사 중 1인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회, B 예비교사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회 수업을 했다. A, B 예비교사는 모두 3학년에 재학 중이

며, 각각 남자, 여자이다. 아래 <Table 1>는 연구 참여 학생 12명에 대한 간단한 정보이다.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rade	gender	achievement
student1	3	F	hIgh
student2	3	M	middle
student3	3	F	low
student4	3	F	hIgh
student5	3	F	middle
student6	3	M	low
student7	6	F	hIgh
student8	6	F	middle
student9	6	M	low
student10	6	M	hIgh
student11	6	M	middle
student12	6	F	low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체육선생님 수업과 교사의 수업에 대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알고자하는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 참여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을 알 수 있는 면담방법이다(Kim, Young-Chun, 2011). 본 연구에서는 학생 1인당 40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인터뷰를 했다.

첫째, 연구 참여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생애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둘이서만 만날 필요는 없었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가 선호하는 치킨가게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경치 좋은 공원의 벤치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고자 했는 면담 가이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Guide Line of interview

Guide of interview
1. Do you think the preliminary teachers there is a difference in what respects to the career teacher in PE class?
2. What do you think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of preliminary teacher?
3. What do you think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of career teachers?
4. It is a more satisfying one of the class of the class of preliminary teacher and career teacher? And why is that?
5.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learning effect in the class of preliminary teacher and career teachers?

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12명의 학생들 각 각으로부터 1개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수집했으며, 이들 음성을 모두 전사하였고 총 52페이지의 전사록이 수집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다. 전사록에서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 및 문구 개방코딩, 축코딩하였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순환적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즉, 연구자는 전사록의 문구를 읽고 또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다시 파악하고,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단어 및 문구를 다시 코딩, 축코딩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경험에서 의미가 있는 주제를 찾았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수업의 특징을 교과서 지식 위주의 수업,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 흥미를 주지 못하는 단조로운 수업, 어려운 기능 수업 등 5개로 주제화했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비교사의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경력교사와 예비교사 두 분 모두 성심껏 가르쳐주시고 학생들을 격려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경력교사의 수업을 통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예비교사의 수업이 경력교사의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주거나 예비교사가 수업의 효과가 경력교사의 수업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본 연구 참여자는 소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력교사는 예비교사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을 갖고 있다. 경력교사의 수업이 더욱 흥미가 있으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반면 예비교사의 수업은 흥미가 없고 단조로우며 학습수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1. 교과서 지식 위주의 수업

교과서는 하나의 학습 자료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가르친다. 그렇지 않고 교사가 단순하게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가르칠 때 교육적 효과가 하락한다. 즉,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은 지식을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며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며, 학습동기가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체득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과서를 지역적 특수성 및 학생들의 상황, 학습수준,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Seo, Kyoung-Hye, 2009; Bang, Gi-Yong, 2012; Park, Eun-Yeong, 2012; Lee, Young-Sun, 2015; Lee, Ja-Yeon, 2008).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종 목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교사는 교과서 및 자료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경험했다. 이들은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주요한 차이점을 이론과 활동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은 예비교사는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나 경력교사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경우 현장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교과서의 틀에 얽매어 있었고, 예비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능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주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비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활동보다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는 단순한 앞구르기과 뒤구르기 연습을 할 때도 활동을 해보게 하지 않아요. 책을 읽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도 해요.(학생 7,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준비한 자료를 열심히 설명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세요. 예비교사는 활동위주의 수업보다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하세요.(학생 1, 9,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의 수업에서는 이론이 많고 응용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예비교사는 너무 교과서의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예비교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가르친다. 너무 교과서 위주로 하세요. (학생 2, 5, 6, 12 전사록 재구성)

둘째, 학생들은 예비교사는 교과서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강의한다고 경험했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체육교육을 받고 있다고 경험하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듣고 실습하는 것으로 경험한다고 했다. 예비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교과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예비교사는 교과서의 전체 내용 중 필요 없는 내용과 더 중요한 내용을 구분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비교사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의 양이 모두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들었지만 그러한 지식이 단편적이고 맥락이 없어 흥미를 못 느끼게 되었다.

예비교사는 교과서 이론만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러다보니 수업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요.(학생 1, 2, 3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단편적으로 수업을 하세요. 즉, 예비교사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전체적인 흐름에서 특정 행동을 연결하여 하지 않는다.(학생 2, 5의 전사록 재구성)

셋째,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교과서 위주의 수업은 지루하고 흥미를 주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교과서를 위주로 가르친다는 것은 곧 교사가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으며,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특정한 행동을 단편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지루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단순한 지식 및 활동만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경험했다.

계속 같은 걸 반복만 하니 지루해요. 항상 방식이 같아요.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활동도 노련하지 않고요, 수업이 부드럽지 못하세요. 수업을 뭔가 혼자만 계속 수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의욕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학생 1, 2, 3, 6, 9,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넷째,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교과서 및 이론 중심의 수업의 학습효과가 낮다고 경험했다. 예비교사의 수업은 경력교사의 수업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수업 방식을 단순한 학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도전의식을 주지 못한다.

예비교사의 설명을 들어도 머리로만 알지 이해가 안되요. 어려워요. 그런데 경력교사는 이론을 쉽게 가르쳐 주세요. 게임도 하고, 리그도 하고 하면서요. 배구동작 등 여러 가지 동작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요.(학생 1, 5, 9,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기능을 어렵게 알려주세요. 경력교사는 기능을 더 쉽게 알려주세요. 재미도 있고요.(학생 전체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활동과 지시보다 지식 전달을 위해 설명을 주로 하여 흥미가 없어요. 경력교사가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학생 5, 9의 전사록 재구성)

이상에서 예비교사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가르치게 되면서 맥락 없는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 동기가 하락하는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은 예비교사의 수업에 반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첫째, 예비교사는 교육내용의 적정화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 적정화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만을 선정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도 긍정적이지 못한 수업을 불러 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Kim, Won-Jung(2009)은 예비교사가 충분히 수업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 배분을 잘 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많은 가르치는 경험이 필요하겠으나,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을 중심목표로 하여 수업을 재구성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이다.

둘째, 예비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업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은 학생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적 경

험을 할 때 그 효과가 크며 의미가 있다. 예비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사로서 가져야 할 역량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역량 기반 교육이란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체육수업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며, 예비교사들의 운동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체육 수업과 거리가 먼 이상적인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Ko, Moon-Soo, 2012).

2.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호흡하며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실천이다. 그러나 예비교사는 학생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습 수준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예비교사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교과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단어도 접하기도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습자를 위해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예비교사는 교과서 또는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려다보니 학습자를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지 못했다. 예비교사에게는 교과서 내용이 곧 수업내용이 되는 경향이 클 수 있다. 예비교사는 교육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재구성하지 못하고 교과서 내용과

이 종 목

흡사하게 가르치게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것을 자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예비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기능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한다.

예비교사는 하기 어려운 것을 자꾸만 시키고 있어요. 수준에 맞지 않은 동작을 하게 되요.(학생 1, 2, 3, 5, 9, 10, 12의 전사록 재구성)

우리로 되는 건데, 너무 쉬웠고, 별 재미도 없었어요. 앞구르거나 뒤구르지만 반복해서 하고 다른 종목을 안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종목으로 계속하니깐 조금 지겨운 경우도 있었다. 계속 구르기만 하였다. 그리고 게임도 조금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학생 1, 2, 3, 5, 9, 10, 12의 전사록 재구성)

둘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습내용 및 기능마다 적절한 학습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특정한 활동에 대해 적절한 지도 시간을 파악하지 못해서 특정한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교육한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는 중요한 내용 및 기능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이고 맥락적이지 못한 학습, 학생들이 직접 적용해보고 실행해보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기회를 갖지 않을 때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정보가 학습될 뿐만 아니라(Kang, Hyeon-Suk, 2011) 지루한 수업으로 경험하게 되기 쉽다.

예비교사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오랫동안 듣게 되어 지루했어요.(학생 3, 4, 7,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특정한 단계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세요. 단계별로 너무 많은 앞구르기 뒤구르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루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학생 3, 4, 7,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께서는 너무 앞구르기를 구르는데 충실하셨습니다.(학생 3, 4, 7,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셋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리한

교육을 하게 한다고 경험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섬세하게 지도하지 못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론과 활동을 결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적절하게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경험했고, 심지어 예비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리한 교육을 하게 한다고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수용가능하고 배울 수 있을 때 지식으로서 변환이 된다는 점에서(Kang, Hyeon-Suk, 2011), 예비교사는 교과서를 학습자를 고려하여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는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세요. 준비단계도 없이 바로 도전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학생 7, 9,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해보라고 해서 걱정이 되요.(학생 7, 9,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넷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가능한 수준의 도전적인 학습 과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Tyler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현실가능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학습경험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Kang, Hyeon-Suk, 2011).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 및 활동을 선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활동의 수준이 모두 다른데, 예비교사는 이것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학생 3, 6,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교과에 있는 내용만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재밌고 어려운 활동을 가르쳐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교사는 교과서 외에 내용과 활동을 많이 가르쳐주세요.(학생 2, 5, 8,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경력교사의 활동의 수준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자세하게 잘 가르쳐줘요. 흥미도 생겨요.(학생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이상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습

자의 수준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루한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너무 쉽거나 하기 어려운 수업을 하게 된다. 심지어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무리한 학습을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예비교사가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 아닌 “일부를 위한 수업”이 될 수 있다 (Kim, Won-Jung, 2009). 교사 전문성은 교육학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교사 전문성은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역량이 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역량 및 배려, 수용 등의 역량이 그 예가 된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너무 쉽거나 어렵게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갖게 못하고 있다. 이는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 방법 및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는 실습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거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예비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3. 흥미를 주지 못하는 단조로운 수업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에서 흥미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력교사의 수업과 달리 예비교사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동작을 맥락 없이 반복적으로 지도하여 재미가 없거나 게임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비교사는 교과서대로 하면서도 서툴러서 수업이 재미가 없고 학생이 활동에 몰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예비교

사는 학생들에게 경력교사보다 수업에 의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흥미와 관련하여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주요한 차이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첫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등 수업을 재구성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력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경력교사는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수업의 방식을 변형하거나 다른 내용을 넣어서 수업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흥미 있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력교사는 게임을 활용하여 수업을 재밌게 운영한다면, 예비교사는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을 진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는 게임도 안하고 수업만 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예비교사께서 처음이라서 그러는지 서투시고 의욕이 그다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학생 12의 전사록에서 발췌)

둘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중심으로 단조로운 수업을 한다고 경험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력교사는 수업을 게임과 연계하여 흥미 있게 수업을 하고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얻게 한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는 수업이 단조로워요. 그러나 경력교사는 게임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흥미도 있고 수업에 몰입하게 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 형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더 흥미가 있어요.(학생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경력교사의 수업에서는 체육공부도 되지만 인성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은 보통 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육 활동 수업에서 협력심과 배려심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교사의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만을 배우는 것 같아서 수준이 낮고 단순해요.(학생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셋째,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의 활동의 수

준이 낮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이 교과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수준이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력교사는 게임을 변형하고, 기존의 교과서 내용 이외에서 다른 게임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수준 높게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예비교사의 수업은 단순해요. 활동도 단조롭고 성취욕구도 주지 못해요.(학생 전체에서 전사록 재구성)

경력교사는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재미있게 수업해요. 게임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방식이 재밌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 내용 말고도 다른 게임도 진행하기도 해요. 리그도 진행하는데요.(학생 1, 2,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교과서 내용도 무조건 가르치고요, 모든 걸 단순하게 진행해요. 그런데 경력교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게임이나 경기 방식을 바꿔서 하기도 하세요.(학생 1, 2,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넷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어렵게 가르친다고 경험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이 단조롭고 교과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력교사의 수업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게임을 변형하는 등 학습내용을 수준에 맞게 게임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학습할 때보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력교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게임이나 경기 방식을 바꿔서 하세요. 게임에 참여하기도 쉽고요, 몸으로 수업을 하니깐 재미가 있어요.(학생 1, 2, 3, 5, 7, 11의 전사록 재구성)

경력교사는 준비도 잘 해 주시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예비교사는 교과서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세요.(학생 1, 2, 3, 5, 7, 11의 전사록 재구성)

경력교사는 색다르게 수업을 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닌 다른 것도 가끔씩 시켜주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비교사는 기초부터 가르치고 배울 부분만 중심으로 가르치세요.(학생 1, 2,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이상에서 예비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체육 수업에 몰입하게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흥미를 느껴야 학생들은 몰입하게 되면서 학습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그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Cho, Hong-Sik(2012)은 체육수업에 대한 교과 흥미도는 학생들의 수업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교사의 체육수업과 경력교사의 체육수업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흥미의 제공 여부가 될 수 있다. 흥미(interest)는 어떤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열중하는 태도, 개인의 호기심이나 자발적 탐색활동(Yum, Si-chang & Park, Hyun-Song, 2005; Cho, Hong-Sik, 2012), 또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Kim, Woo-Jung & Park, In-Kyu, 2009; Cho, Hong-Sik, 2012). 최근 들어 Yoon, Mi-Sun과 Kim Sung-Il(2004)은 교과 흥미도의 구성요인을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 교과에 대한 가치 및 노력 정도(인지적 흥미), 교과에 대한 유능감, 담당자 및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점에서 예비교사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몰입하도록 교과 지식 외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경력교사는 단순하게 체육수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흥미 있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게임을 체육수업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게임과 같이 재미있는 수업으로 경험하였으며, 그러는 와중에 학생들은 체육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교사는 교과서 위주의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 같으며, 활동과 결합한 체육수업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4. 어려운 기능 수업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교사는 기능을 쉽게 익히도록 지도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경력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모범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효과적으로 기능지도를 한다고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한 예비교사의 기능지도에 대한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기능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즉, 학생들은 기능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이 자세하게 봐주지 않는다고 경험한다. 예비교사는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기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유심히 보고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으며 무엇이 문제이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교사는 제가 안 되는 기능을 잘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경력교사는 항상 자세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요, 잘못된 자세는 바로 바로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비교사는 시범을 자주 보이는 정도예요.(학생 1, 2, 3,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두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교사는 자세하고 섬세하게 코치해주세요. 예비교사는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고 가끔씩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경력교사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직접 도와주세요.(학생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예비교사는 이론 위주로 설명하세요. 교과서 위주로 설명하는 편이세요. 경력교사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세요.(학생 1, 2, 3, 8의 전사록 재구성)

둘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르친다고 경험했다. 기능을 익힌다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학생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창의적인 학습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학습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스스로 문

제해결을 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사고력을 자극하듯이(Kang, Hyeon-Suk, 2011), 기능을 익히는 것 역시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임하도록 학습 경험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학습은 친숙함과 낯설 간의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듯이, 기능학습에서도 학생이 낯설고 어려운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Yun, Hui-jeong, 2009). 그러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구르기 등 낮은 수준의 단순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지도하여 도전적이지 못하며, 심지어 지루하기도 한다고 경험한다. 그에 비해 경력교사는 단순한 기능과 더불어 더 수준이 높은 기능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었다.

경력교사는 더 많은 기능을 알려 주시고 시범을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방법을 쉽게 알려주시면서 지도하세요. 예비교사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며 가르치세요.(학생 1, 2, 3, 8의 전사록 재구성)

수준에 맞지 않는 동작 가르쳐 주고, 책 중심으로 수업하지만, 체육선생님은 동작을 잘 가르쳐 주고, 쉽게 배우게 해주며, 교과서 밖의 게임위주로 수업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예비교사는 계속 구르기만 하였는데 경력교사는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해주셨어요.(학생 8, 10, 11, 12의 전사록 재구성)

차이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예비교사는 재미가 없었고, 다 알 수 있지만, 경력교사는 수준이 높았어요.(학생 10, 12의 전사록 재구성)

셋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기능지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경험한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기능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지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에 비해 담임선생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익힐 수 있을 때까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책임지고 지도해준다고 경험하였다.

경력교사는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키세요. 될 때까지 시켜서 기억이 오래 더 알기 쉽게 가르치세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학생1, 4, 8의 전사록에서 발췌)

경력교사와 배구를 할 때 기능을 많이 연습하게 되요.(학생8, 9, 10의 전사록에서 발췌)

넷째,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에서는 기능이 향상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능지도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경력교사의 수업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이 향상된다고 경험하고 있다.

예비교사의 수업에서보다 경력교사의 수업에서 배드민턴 등 열심히 체육수업을 하여 배운 기능이 더 향상된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우는 법을 몰랐는데 경력교사가 가르쳐 주셔서 잘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체육수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더 잘 가르쳐 주세요.(학생1, 3, 5, 10)

이상에서 예비교사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교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인 내용 학습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기능 수업이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에 맞지 않아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심지어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책임감이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예비교사들이 교육대학교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론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지식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초기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생실습에 대응하고 체육교사교육자와 지도교사가 공동의 책임으로 실습을 준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Son, Cheon-Taik, 2002).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업을 학생들이 비교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예비교사 수업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기법을 활용하고자 했다. 예비교사에게 교육실습은 교사로서 성장하는 첫 단계에

속한다. 즉, 예비교사에게 교육실습은 미래에 교사가 될 학생들이 재학 중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첫 경험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교과교육과는 달리 예비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실무를 배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면서 체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비교사에게 교사로서 첫 경험인 교육실습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촉진하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실습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경험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료 교사 및 학생의 의견을 통한 반성적 성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자각과 반성적 성찰은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를 통해 예비교사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예비교사의 실습 경험과 이에 대한 반성은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을 체육선생님의 수업과 비교하여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예비교사의 수업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력교사의 수업보다 예비교사의 수업이 부족하다고 경험했다. 첫째,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교과서의 틀에 얽매어있었고, 예비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및 기능을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예비교사는 교과서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강의한다고 경험했으며, 흥미와 학습효과가 낮다고 경험했다.

둘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습자를 위해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지 못한다고 경험했고, 학습내용 및 기능마다 적절한 학습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리한 교육을 하게 한다고 경험했고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셋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에서 흥미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력교사의 수업과 달리 예비교사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동작을 맥락 없이 반복적으로 지도하여 재미가 없거나 게임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비교사는 교과서대로 하면서도 서툴며 재미가 없고 활동에 몰입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등 수업을 재구성하지 못한다고 경험했고, 단조로운 수업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의 활동의 수준이 낮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어렵게 가르치신다고 경험했다.

넷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교사는 기능을 쉽게 익히도록 지도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기능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경험했고,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르쳐서 지루하다고 경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기능지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경험했고, 예비교사의 수업에서는 기능이 향상되지 못한다고 경험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효용성 있는 자질을 배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대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가 이후 교사로서 수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무엇을 더욱 준비해야 하며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가 이론학습과 더불어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보다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자의 흥미와 만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실천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교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경험 선정 및 조직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고력의 확장 및 개념 이해, 그리고 기능의 숙련은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생산적으로 수업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학생들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Kang, Hyeon-Suk, 2011).

셋째, 학생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은 예비교사가 적절한 수업을 연구하도록 자극하는 비평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교생실습에서 예비교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e, Jong-Hee(2014). View at Physical Education in Small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Eyes of

-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607~626.
- Bai, Jeong-Ym · Park, Hyoung-Ran · Lee, Man-Seok & Lee, Han-Ju(2011). The Comparison of Teacher' and Students'Performance Assessment,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 13(1), 45~56
- Bang, Gi-Yong(2012). Analysis of factors to obstruct curriculum reconstruction :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ho, Hong-Sik(2012). Effects of Subject Interest of Physical Education on Class Flow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1), 179~191
- Clandinin, D.J.(1985).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 Study of teacher's classroom images. *Curriculum Inquiry*, 15(4), 361~385.
- Clandinin, J., & Connelly, N.(2007).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Kang, Hyeon-Suk · Park, Min-jeong · So, Kyung-hee · Jo, Duk-Joo & Hong, Eun-Suk, Trans.). Paju: yswpub.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Cortazzi, M.(1993). Narrative analysis. The Falmer Press.
- Jeon, Young-Han & Lee, Choong-Hwan(2008). Analyze Wrries which Pre-service Eementary Tachers' Fel in Taching Pactice of Pysical E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2(1), 83~100.
- Kang, Hyeon-Suk(2011). Modern curriculum explores. Seoul: Hajisa.
- Kim, Jung-hyun & Park, So-Yong(2012). The Effects of Teacher Evaluation by Students on Class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2), 277~297.
- Kim, Won-Jung(2009). Study of self-reflective process on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microteaching,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7(1), 25~52.
- Kim, Woo-Jung & Park, In-Kyu(2009). Exploring Teaching Strategie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rough Study on the Conception of Interes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7(3), 133~167.
- Kim, Young-Chun(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1. Seoul: academypress.
- Ko, Moon-Soo(2012). A Strategy of Conflict Resolutions and Gap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 through Teaching Practicum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8(3), 17~33.
- Lee, Ja-Yeon(2008). A Case Study on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s' Curriculum Development.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Je-Haeng(2007).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Changes in Teach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12(1), 83~100.
- Lee, Young-Sun(2015). A Study of Issues and Tasks Related to Curriculum Reconstruction. ma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Eun-Yeong(2012). Case Study for Curriculum Reconstitution by Teachers. ma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Kyung-Suk & Lee, Je-Haeng(2009).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from teach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5(1), 69~79.
- Park, Kyung-Suk(2011). Analysis on solving strategies and difficulties in physical education student teaching of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 661~670.
- Seo, Kyoung-Hye(2009). Teachers' Experience of Reconstructing National Curriculum,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27(3), 159~189.
- Son, Cheon-Taik(2002). Present Situations and Improving Plans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9(2), 26~42.
- Yang, Jeong-Mo & Lee, Dong-Ho(2015).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Difficulties and Coping Methods that the Femal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Experience in the PE Teaching Practic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9), 701~727.
- Yoon, Mi-Sun & Kim Sung-II(2004). Differences in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chievement by Subject Preference

- Typ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0, 51~72.
- Yum, Si-chang & Park, Hyun-Song(2005). Differences in Subject Interest and Academic Achievement by Types of Learning Sty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28, 1~26.
- Yun, Hui-jeong(2009).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Focused on Tyler's 'Rational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14(2), 65~84.
-
- Received : 03 March, 2016
 - Revised : 30 March, 2016
 - Accepted : 11 April, 2016